



장애인 **고용차별**,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 기준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수 261만명, 장애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노동자로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일터에서 장애에 대한 이유로 차별을 받고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 노동 지원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상담 내용이다.

#1. 지체장애인 최 모(30대)씨는 장애인 3명, 비장애인 7명이 일하던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품을 조립했다. 비장애인들은 최씨 등 장애인 동료들과 대화는 물론 점심 식사 등도 함께하기를 꺼렸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수시로 하는 그들에게 최씨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비장애인 동료들이 불량률이 높다고 사업주에게 건의했고, 최씨를 비롯해 장애인 3명은 해고당했다.

#2. 지체장애인 임아무개(40대 중반)씨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다. 주변에서 장애로 몸이 불편한 그의 행동을 흉내 내고 모욕 주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참으면서 일했지만 용역회사에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임씨를 해고했다.

#3. 손아무개(40대 후반)씨는 근무 중 사고로 왼쪽 손가락 2개를 쓰지 못하게 됐다(산업재해 6급). 치료를 받고 복직했는데 하는 일이 달라졌다. 산재 전에는 컴퓨터로 공작기계를 다뤘지만, 복직 뒤 페인트칠 업무에 배정됐다. 당연히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거의 날마다 상사로부터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고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고 폭언에 시달렸다. 근무 부서를 바꿔 달라고 수차례 회사에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손씨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일터 내 장애인 차별의 원인은 무엇일까?



직원 50명 이상 규모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가운데 장애인 노동자와 같이 일하기 위한 시설이나 비장애인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 등 준비가 부족하고, 노동법령의 감시가 느슨한 소규모 업체에 장애인 고용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제일 큰 원인은 비장애인 노동자들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부족이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에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한 노동력이라고 판단해 일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럼 정말 장애는 노동력에 큰 영향을 줄까?



장애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직업안정연구원이 2000년 발표한 ‘장애인의 직업생활실태와 적합직종’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교수, 검사, 변호사, 판사,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등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마사지가 대표적인 직종이며, 전화상담원, 피아노 조율, 음악가, 가수 등의 직종이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서비스직군 보다는 기능직, 기계장치조작직 등이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지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5~7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면 의류 분류나 수하물 운반, 일반적 노동이나 농장 업무, 페인트 작업, 간단한 목공 등 손을 사용한 업무가 가능하다.

8~10살 수준의 지능이라면 대장간 조수, 구두 수선, 인쇄기 조작, 우편 배달, 옷 만들기, 상점 점원 등 좀 더 복잡하고 일부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이 가능하다. 이처럼 장애의 이유로 노동에 제한을 받을 일은 희소하다.